

## <KAEDC 주최 제1회 미주한인경제 컨퍼런스 오찬강연>

2006.1.27, Wilshire Grand Hotel, Los Angeles

### 해외 한민족 경제와 미주경제인의 역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이광규

1. 한국의 경제발전
2. 해외 한민족의 경제 상황
3. 미주 경제인의 역할

#### 1. 한국의 경제발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후반 인류 역사의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이라고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로 대전 이후 해방이 된 나라이고 그것도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되는 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 12대 교역국이 된 것이다. 이것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한다. 독일과 일본이 패전국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옛 지위를 회복한 것은 2차 대전에 비록 패전국이 되었으나 전승국과 겨룰 실력이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것은 회복이며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첫 번째 개발도상국가가 되었다.

1945년 해방되기 이전 일본은 한국을 식량과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기지로 여겨 왔으며 1930년 대륙을 침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북한 쪽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였다. 해방 후 남한은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공업이 있었다면 그것은 방직공장, 섬유공업 같은 경공업뿐이었다. 전력도 북한에 편중되어 있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송전이 끊기자 남한은 극심한 전력부족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1950년에 시작하여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산업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남북한 공히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갖는 적대감은 오늘날에도 상호 불신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약 5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여 남한의 사정은 더욱 처참하였다. 휴전이 되던 1953년 한국의 GNP는 67 달러이고 주민의 5분의 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후 광공업에 의존하여 경제 부흥을 서둘렀으나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 경제성장률은 보잘 것이 없었고 경제발전은 1960년대 제3 공화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961년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한일조약에 의한 유상무상 5억 달러 차관 도입과 독일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을 담보로

하는 1억 8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기반으로 1962년부터 1차 경제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효과를 거두어 1962년에서 1971년 1차와 2차 5개년계획이 추진하는 동안 연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1962년도 5,500만 달러의 수출액이 1971년에는 10억 7천만 달러로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제2차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끝낸 후 한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1973년을 계기로 정부는 석유화학, 제철,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고 이번에는 재미동포의 두뇌에 크게 의존하였다.

당시 세계시장은 점차 중화학공업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으니 세계의 산업화 추세는 경공업 제품보다 중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한국의 경우 2차에 걸친 기획 경제의 성공으로 한국도 일본을 따르게 한 것이다.

당시는 경제정책 전환에는 경제 외적 조건도 있었다. 말하자면 미국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과 월남의 패망이 새로운 변수가 된 것이다. 한국은 자체방어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을 위하여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재벌이 성립된다. 당시 10대 재벌은 1972년 평균 7.5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1979년에는 3배가 넘는 25.4개 자회사들을 두게 된다.

이 기간동안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는다. 석유파동에 한국이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석유수출로 엄청난 외화를 획득한 중동 국가들이 방대한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마침 적절한 기술과 노동력을 가진 한국이 중동의 건설에 참여하여 이익을 보게 된다. 당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현저하게 저하되던 시기 1973년에서 1979년 한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2단계 도약 시기는 견고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올 전자산업, 제철, 자동차, 조선 등 첨단산업에서 대만보다 앞 설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포항제철의 설립은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단단히 한 좋은 예가 된다. 포항제철을 추진하려 할 때 세계은행이 채산성 없는 무모한 계획이라 반대하였을 때 박태준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성사시켜 현재 포항제철은 한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된 것이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기와는 달리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발전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경제적인 안정 성숙기에 진입한다. 10?16 박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정치적 불안과 냉온으로 인한 흉작 그리고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상승한 유가 등으로 한국 경제는 불안한 사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0년 2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총생산이 5.2%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1979년 12월에서 1980년 12월까지 소비자 불가지수는 34%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증산정책을 실시하였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장하고,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각종 정부 보조금을 제거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물가를 통제하고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은 임금수준의 안정, 물가상승률의 억제 그리고 이자율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소매물가와 도매물가가 각각 1.9%와 -0.8%로 떨어져 경제성장률은 12.6%에 달해 한국 경제는 다시 고속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1986년부터는 10% 이상의 눈부신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이룩하여 누적된 외채를 일부 상환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는 1985년의 이른바 3저 현상(원화 저, 유가 저, 금리 저)으로 호황을 맞는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 12%의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수출이 증대되며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되었고 국내에서는 건설 투자가 활발하여 지고 내수가 증가되었다. 특히 88 올림픽을 전후한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건축 붐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호황을 보게 된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 차원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GNP 1만 달러를 달성하여 명실 공히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3디 업종 기피현상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사양화가 경제 선진국의 지표는 아니다. 한국은 1992년 새로운 신3저 라는 호황 조건을 갖추면서도 이것을 슬기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우여 곡절을 경험하게 된다.

1992년 정권을 인수한 김영삼 대통령은 과인소비와 노동의욕의 상실이라는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신경제 백일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임금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 더하여 부동산 상승에 기인하던 거품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한국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정부는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규정하던 이자율을 낮추었고 임금을 억제하여 기업들이 장비와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중소기업에 위한 공공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00일 계획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정부는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나 이것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 회복의 기미가 1994년부터 한국의 주력산업인 제철,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야기되었다. 포항제철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594만 톤을 생산하였으니 이것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소비 35만 대와 수출용 16만 대를 생산하였다. 내수용은 전년대비 7%가 증가한 것이고 수출은 18% 증가한 것이다. 반도체는 메모리 칩 4메가 DRAM 생산이 호조를 보여 1994년 1.4분기에 15억 달러의 매상을 올렸으니 이것은 전년도 대비 67%의 성장을 본 것이다. 가전제품은 삼성전자 팩시밀리 58%, 금성 전자렌지 41%, 그리고 대우전자 세탁기가 218%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경공업 제품 이틀테면 의류, 신발류 등은 고임금 저 생산에 더하여 중국과 ASEAN 여러 나라들의 제품에 밀려 내수용으로 전락하였으며 그것마저 부진하여 한국 경제가 이미 크게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1970년대 100만 톤을 생산하는 포항제철소가 한국을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한 것이라면 1990년 반도체는 전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국으로 진입시킨 한국의 힘의 상징인 것이다. 1994년 4메가 DRAM 101억 700만 달러 수출은 전년대비 75.1%가 증가한 것이며 단일 품목 수출로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된다. 이것은 삼성 전자, 현대 전자, 그리고 금성 일렉트로닉 등이 공헌한 것이다.

1993년 보도에 의하면 삼성 전자가 30억 5천만 달러의 매상을 올렸으니 이것은 일본의 후지도, 미쯔이 전자, 그리고 마쯔시다 전기를 제치고 세계 7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디램 메모리 분야에서는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한 것이 된다. 현대 전자와 금성 에렉트론 등도 세계 10권에 드는 회사들이며 세계 메모리 생산에서는 한국이 세계 생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입국”을 향한 한국의 “제2의 도약”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10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 이것은 한국이 국제신용도가 높아 세계 경제 상위권에 진입한 것을 의미하지만 국내외 경제 사정은 극히 어려운 때 이었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임금 고실업 등의 구조로 경쟁이 불리하였고, 대외적으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미화 달러의 상승과 일본 엔화의 하락에 의한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경상수지가 적자였다. 이런 때 한보사건이 발생한다. 때마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 일기 시작한 통화 금융위기가 한국에 밀어 닥쳐 통화 원이 급락하고 외화준비고가 급감하여 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은 IMF에서 200억 달러의 국제금융을 받고 세계은행, 미국 일본 정부 등 각각 100억에서 200억의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총액 570억 불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외국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 원리 도입”을 약속하고 대내적으로 재벌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삼성의 예를 보면 조직에서 30%, 경비에서 50%, 에너지에서 30%, 월급에서 10%를 절약한다. 물론 다른 재벌들도 이와 유사한 자체의 구조조정을 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벌 간의 이른바 “빅딜”을 강요하였다.

“빅딜”이란 업종별로 1개 내지 2개 사로 통합 재편하는 것이나 이를테면 당시 자동차 5개 사를 2개 사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와 모든 기업이 힘을 합하여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력하여 1998년 무역 흑자 399억 달러를 기록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89억 달러를 이룩한다. 당년 무역의 경우 일본이 900억 달러, 독일이 500억 달러, 중국이 400억 달러로 한국이 4위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마침내 외화준비고가 485억 달러라 하였다. 이것은 IMF와 합의한 42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한국은 IMF 우등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메가폰드” 급의 큰 충격에서 살아남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은 세계 1-2위를 향하여 진력하게 된다. 이제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분야가 3개가 있다. 하나는 반도체이고 하나는 자동차이며 하나는 가전제품이다. 다른 영역에서 이를테면 조선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철강회사로는 포항제철이 일본 신일본제철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다.

통신 산업에서도 한국이동통신, 그리고 포항제철을 대주주로 하는 제2 이동통신 등이 카폰과 이동전화 업무를 시작하였다. 컴퓨터 통신에서도 한국통신, 데이콤 등이 등장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과도 연결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의 항공 산업에로의 진출을 선두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항공, 인공위성 등의 고도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1

5년 만에 IMF의 위기를 벗어난 한국은 2003년 11월 수출이 186억1700만 달러이고 수입이 157억 6천만 달러이기에 28억 67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 된다. 이것은 월간 규모로 말하자면 1998년 12월 37억 7천만 달러 흑자기록 이후 최고가 되는 것이다. 그 후 8개월간 무역흑자를 보았으며 이를 합한 누적흑자는 134억 5200만 달러가 된다.

IMF 이후 한국의 제조업이 원가경쟁력을 상실하여 간다는 적신호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임금에 방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본의 제조업이 부활하기 시작하니 한국의 제조업을 호두까기 기계(nut cracker)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제상황 비교)

내 용	단 위	한국(순위)	미국(순위)	일본(순위)	중국(순위)
국토	1000ha	9,926(109)	962,909(3)	37,780(61)	959,805(4)
인구(2001)	1000명	47,069(26)	285,926(3)	127,335(9)	1,292,382(1)
명목 GDP (2002)	억달러	4,766(12)	104,168(1)	39,788(2)	12,371(6)
1인당GNI(2002)	달러	9,930(26)	35,060(4)	33,550(5)	940(98)
교역규모(2002)	억달러	3,146(13)	18,960(1)	7,524(3)	6,208(5)
수출(2002)	억달러	1,625(12)	6,935(1)	4,160(3)	3,256(5)
수입(2002)	억달러	1,521(14)	12,025(1)	3,364(4)	2,952(6)
선박건조량	1000 CGT	6,824(1)	N.A	6,656(2)	1,572(3)
조강생산량	백만MT	45.4(5)	92.2(3)	107.7(2)	181.6(1)
에틸렌생산	천톤	5,530(4)	27,699(1)	7,078(2)	4,680(7)
DRAM 매출액	백만달러	4,985(1)	2,794(2)	-	N.A
자동차생산	1000대	3,148(6)	12,244(1)	10,257(2)	3,248(5)
쌀생산	1000톤	6,650(12)	9,569(11)	11,111(9)	176,553(1)
수산물어획	1000MT	2,423(11)	5,228(6)	5,937(3)	41,513(1)

내 용	단 위	한국(순위)	미국(순위)	일본(순위)	중국(순위)
연구개발투자	억달러	125(8)	2,823(1)	1,420(2)	126(7)
원유수입	억달러	214(3)	793(1)	388(2)	117(7)
관광수입	10억달러	6.3(18)	72.3(1)	N.A.	17.8(5)
초고속인터넷	100명당	19.2(1)	5.8(6)	4.9(9)	N.A
PC보급대수	100명당	56(7)	69(1)	38(18)	2(47)
IMD 국제경쟁력	100점	46.476(13)	100.0(1)	56.303(11)	50.8(12)
국가이미지	0-10	5.47(10)	6.97(4)	5.38(11)	7.23(3)
세계100대 브랜드개		1(10)	62(1)	7(2)	0
Fortune 500	사	13(7)	192(1)	88(2)	11(8)
도시생계비	뉴욕100	서울101(8)	뉴욕100(10)	동경126(1)	북경105(5)
국방비	억달러	119	3,224	395	46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편 대한민국 2003.)

(위표에서 에테린생산은 2001년, 수산물어획은 1999년, 연구개발투자는 2001년, 원유수입은 2001년 국방비는 2001년, 세계100대브랜드는 2003년, Fourtune500은 2003년의 집계이며 기타는 2002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최근 한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주목할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가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현상인 저출산 노령화 사회 현상이다. 한국은 1960년대만 하여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하여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고령화 사회현상도

급격히 출현한 현상의 하나이다.

또 하나의 현상은 이른바 한류(韓流)라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의 열풍이 몹시 심하게 불어 한국인 자체가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한류를 문화 산업(Culture Industry)이라 한다면 이것과 같이 IT 산업과 BT(Bio Technology)에서도 한류가 불어 한국은 후기 산업사회에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2 해외 한민족의 경제 상황;

정부 보고에 의하면 2005년 현재 6,638,338명이 175개국에 분산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제 결혼한 한국 여인 20만 명, 입양인 20만 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약 7백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한인들의 경제현황은 거주지의 조건, 이주 연대, 그리고 동포 수 등에 따라 다르며 이들을 대략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30만이 거주하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둘째는 12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 셋째, 240만 명이 있는 중국, 넷째 63만 명이 거주하는 CIS지역, 다섯째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유럽, 여섯째 약 30만 명이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양주 지역, 일곱째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중남미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본)

미국과 캐나다는 절을 바꾸어 보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을 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본 일본은 대대로 일제시대 거주한 사람들로 해방이 되었을 때 약 200만 명의 한인이 있었다고 약 3분의 2가 귀국하고 3분의 1인 60만 명이 남아 오늘의 재일 동포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재일 동포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일본인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삶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큰 재벌이나 대 학자나 과학자 등이 없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에서도 차별을 받았고, 취직에서도 심지어 결혼에서도 한인은 생각도 못할 차별을 받아왔다. 그것도 일본인들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으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그나마 차별이 완화된 것은 1970년에 있었던 히다찌(日立) 사건 이후의 일이다. 가전제품의 재벌 기업인 히다찌 입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 박종석 군이 취업을 최소당한 것에 항의 하여 야기된 히다찌 사건은 한국 그리고 미국의 협력으로 3년만에 승소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인들이 아동수당, 공건축택 입주권 등을 얻게 된다. 현재 재일 한인들은 지방 참정권 획득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재일 동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Business)가 있다면 그것은 빠징고, 야끼니구 식당, 그리고 산달 등이다. 빠징고는 해방 후 일본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시장판의 길거리 좌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일본인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호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재일 동포의 공헌이 지대한 유흥 산업이다. 대도시 변화가에는 찬란한 불빛과 해국 군가의 요란한 음악이 사람의 흥을 도두는 곳이 빠징고 점포이다.

전 일본에는 약 1만8천여 개의 빠징고 점포가 있으며 이것의 약 70% 이상을

한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한 사람이 평균 3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징고 업자는 6천명 내지 7천명으로 추정한다. 2000년의 한 연구자에 의하면 빠징고 업계의 연간 매출이 17조 8천억 엔이라 하고 한 연구자는 30조 엔이라 한다. 한인들이 동 업계의 70%를 점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매출은 12조 또는 21조가 되는 셈이다.

빠징고 업계에는 최고 업자가 제일 한인 기업가 한창우 씨이다. 전국에 60여 개의 점포와 7천여 명의 종업원을 가진 한창우의 “마루한”은 2005년 금년 1조 엔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야끼니꾸 식당은 현재 전국에 1만 7천 3백여 점포가 있으며 이것은 한인들이 시작하여 한인들에 의하여 독점된 식당이다. 2000년 현재 각 식당가 매출이 5,700억 엔이라 한다. 이것은 소 내장과 돼지 내장을 구워 먹는 이른바 호로몽 야끼로 유명하다. 일본인은 먹지 못하고 버리는 소나 돼지의 내장을 잘 손질하여 불고기와 같이 구워 먹는 호로몽 야끼는 단백질,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오늘날에는 일본인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

호로몽 야끼를 포함하는 야끼니꾸 식당은 동경 남부에 위치한 가와사기(川崎)의 토리아타운인 가와사기 “세멘트 도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도살장에 가까운 이곳에서 한인들이 호로몽 야끼를 시작하여 전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대부분의 점포가 영세한 식당이지만 개중에는 중간급의 식당도 있으며 유명한 대식당도 있다. 동경 긴자의 태창원, 천산각, 청향원, 오사가의 식도원 등도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주구의 동해원이 유명하다. 10층 건물로 이루어진 “동해원 신주구 점”은 야끼니꾸 레스토랑, 야끼니꾸 바이킹, 한국왕조 요리 등이 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우수 후드 서비스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산달은 여자 신발로 “햅부”라고도 한다. 이것은 오도리 햅번이 처음 신었다 하여 부친 이름이다. 이것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것이 주로 한인들이 하는 것으로 특히 오사가 일대 한인들의 수 만 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신발에 밀려 산달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직 오사가 일대의 한인들은 신발, 가방, 혁대 등 가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일본에는 최근에 이주한 이른바 “뉴카마”라는 한인 10여 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경 신주구 “오구보 도리” “쇼구안 도리”에 집거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여 동경의 코리아 타운이라 한다.

## (중국)

중국에는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는 최근에 이주한 한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이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순수 조선족은 192만 명이라 한다. 이들은 1870년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여 중국 동북지방에 쌀농사를 전파하였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싸웠던 우국지사들의 후손들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약 200만명이 만주에 있었으나 약 3분의 1이 귀국하고 3분의 2가 남아 중국 조선족이 된다.

중국 조선족은 해방 후 장개석과 모택동 군이 싸우는 이른바 해방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그 후에도 반우파운동,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 등 크고 작은 20여 사건에 시달리며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남은 한인이다. 그간 주덕해 자치주 주장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일 없고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역시 불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마치 한국이 산업화를 서두르는 1960년대 화교들이 산업화의 뒀안길에 머물게 되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중국 조선족이다. 조선족의 집거 지역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성급이 아니며 중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산골 작이다.

중국 조선족은 다행히 발달된 조국 한국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초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초기에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은 크게 환영을 받고 많은 선물을 가져갔으나 그 후 한국으로 물밀 듯이 몰려 온 사람들은 한때 서울의 길거리에서 약장수를 하였다. 이것도 단속으로 인하여 중지되자 중국 동포들은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남자는 건설현장 여자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그 수가 한때 2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어를 하기에 오히려 더 착취를 당하는 불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오늘날에도 10만명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이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미국이나 일본 동포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한인 동포가 있는 곳에는 없는 곳이 없다. 말하자면 많은 3중국 조선족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자체 내에서도 조선족은 연변자치주와 동북 3성 집거지를 떠나 중국의 대도시 특히 연안도시로 이주하여 동북 3성 집거지역이 황폐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대행한 것은 새로운 약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연해 도시에 중국 조선족이 집결하여 한인 기업인을 도와고 한국 기업인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한국 기업인들로부터 기술을 배워 독립하여 이미 자기 기업을 이룩한 젊은 기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청도의 경우 한국 기업인 5만 명이 진출하여 있고 이곳에 중국 조선족 15만 명이 이주하여 조선인촌을 이루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배워 창업한 중국 조선족 기업인이 수 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미국이나 일본만큼 유명한 기업인이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하얼빈의 석산린, 장춘의 이규광, 심양의 이준화 씨 등이 있다. 이들은 불과 1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는 유명한 재벌급에 든 분들이다.

## (CIS)

러시아에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부터이다. 한때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연해주에 집거하였었기 때문에 연해주는 한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한인들은 적성민족이라 하여 한국어를 소수민족언어에서 제외 당하였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군에 복무할 수도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오로지 집단농장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인들은 열심이 일하여 많은 노력 영웅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 농장의 김병화, 포리도젤 농장의 황만금, 우수토베의 세르게이 윤, 피루가나의 부르디밀 김 등은 유명한 지도자였다.

구소련이 와해되고 CIS가 성립되면서 한인계 재벌 10여명의 두각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 국회 두마 의원인 루보미르 장을

위시하여 로수토부나도누의 세르게이 덴, 알마티의 유리 최, 우수리스크의 알렉산더 전 등을 위시하여 10여명의 신흥 재벌은 러시아의 대 자본가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

유럽 교민의 기초를 이룬 사람들이 서독 관산 근로자와 간호원이다. 1962년 이주하기 시작한 독일 관산 근로자는 1965년 이후 대대적으로 이주하여 약 8천명에 이르렀고 간호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주하여 약 1만 2천명의 간호원이 서독 병원에 근무하였다. 관산 근로자나 간호원이 모두 3년 계약으로 이주한 계약 노동자였다. 관산 근로자는 3년 계약이 끝나자 간호원과 결혼하여 대부분 독일에 남게 된다. 간호원은 한국 여성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경노사상 등으로 병원에서는 물론 환자에게서도 인기가 있어 병원은 계약 기한을 연장하여 모두 독일에 남게 된다.

관산을 나온 한인들은 공장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잡화상, 식당 등을 경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독일이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하여 대 재벌의 출현을 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발달시켜 큰 부자도 없고 몹시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풍토에 유럽 나라들은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민족 이외의 인종에게 차별을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럽 다른 나라도 같다.

유럽에 한인으로 큰 재벌이 된 분이 스페인의 권영호 회장이다. 이분은 원양어선을 타던 분으로 한국의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스페인의 원양어선을 탔다. 서아프리카 라스팔마스에서 조업으로 성공하였고 47척의 원양 어선을 거느린 대 재벌로 성장한 분이다. 이분에게 존경심이 가는 것은 원양어업에 성공한 사례이외에 많은 중국 조선족을 고용하고 중국 조선족을 위하여 중국에 대학을 건립하였다. 또한 미노르카 섬에 있는 안익태 선생의 유가를 구입하여 한국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양주 등에는 약 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이주 역사가 주로 1970년 이후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 없다. 동남아시아와 대양주에 진출한 많은 동포들은 1975년 월남전이 끝난 이후 이 지역으로 분산된 사람들이며 주로 여행사, 기념품상, 식당 등 한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 목재상, 무역상 등으로 진출하는 사람, 무역업 기술자로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다.

여행작가 우 길이가 저술한 “한국을 떠나 성공한 사람들” 이란 2권으로 된 리포트에서 남태평양 여러 섬에 거주하며 성공한 사람을 소개한 저서에 비누아쿠 섬의 자개상, 솔로몬 군도의 조개단추 공장, 피지의 통조림 공장, 쿡 아일랜드의 티셔츠 공장, 통가의 사계절 농장, 사모아의 태평양 기계, 괌의 개발기업, 사이판의 주유소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승은호 회장이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라 하겠다.

(남미)

남미 동포들은 방대한 영역에 10만 명에 불과하여 미국과는 다른 유형이다. 남미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정의 집중화이고 하나는 삼각이민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브라질에 약 4만명의 동포가 거주하나 이들의 80% 이상이 한 업종인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약 2만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90%

이상이 역시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남미 동포들이 섬유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처음 이민 올 때 평생 입을 옷을 마련하여 왔다. 처음 농업이민으로 출발하였으나 농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모두 도시 빈민가에 입주하여 가져온 옷을 팔기 시작하여 이른바 □반디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가져온 옷을 다 팔자 이번에는 도매상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소매를 하였고, 다음에는 집에 재봉틀을 놓고 옷을 만들어 팔았으며 돈을 모아 의류 도매상가로 유명한 봉이지리로 진출하게 된다. 이리하여 소매상, 도매상을 장악한 한인은 제조업에도 종사하여 의류에서도 특히 여성이 의류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 동포들은 두 번째 특성으로 인하여 대 재벌의 출현이 어렵다. 두 번째 특성은 삼각 이민이다. 현재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을 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며 미국으로 재이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 거래가 미국 은행이고,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며 기회만 있으면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려 한다. 이것은 남미 여러 나라들의 정국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 3. 미주 경제인의 역할;

현재 미국에는 210만의 교민과 캐나다에 약 18만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하기에 미국의 예로만 보기로 한다. 미국 이민의 역사는 10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의 대부분은 1965년 미국의 새 이민법에 의하여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100년 전에 있었던 미국 이민은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온 농업이민이었으나 1965년 이후에 온 이민은 엘리트 이민이라 한다. 엘리트 이민이란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이미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미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주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엘리트 이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적응 과정의 어려움이고, 둘째는 직종의 이동이며, 셋째는 대리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 적응의 어려움이란 이민 오는 사람의 기대치와 이민을 수용하는 나라의 기대치가 다른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엘리트 이민자는 거주국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이민을 간다. 그러나 이민을 수용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높은 이민자의 기대치를 낮은 수민자 나라의 기대치에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치의 하강이 시작되었다가 최저까지 내려간 후 다시 상승 곡선을 만드는 것을 허원무 교수가 탄젠트 곡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곡선을 긋는 시기가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 저것 따지다 막판에 막노동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기계가 한국인 체구에는 맞지 않으며 특히 흑인 노동자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옮기는 직장이 자영업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영업이 세븐 일레븐과 같은 소형 가게 체인점이다. 이곳은 많은 영어가 필요치 않으며 장시간 일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인들에게 유리하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린 그로서리로 발전하거나 일반 그로서리로 발전하거나 리쿼어 스토어로 발전한다. 그로서리에서 몇 년을 지낸 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유소로 넘어가거나, 식당으로 넘어가거나, 약세서리 점으로 전문화 하거나, 문방구로 넘어가거나,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로 넘어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모텔이다.

재미 동포들이 시계방을 하거나 구두 수선업을 하거나 봉제업 등 어떤 업종이나

처음 시작한 업종은 유태인의 것을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태인은 한인보다 한 세대 전에 이주하여 작은 점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헌신하여 자녀들이 모두 화이트 칼라 직에 종사하여 노인이 된 업주가 노후에 물려줄 사람을 찾을 때 한인들이 진출하여 유태인의 업종을 인수한 것이다. 그러나 유태인은 한 직종에 평생 종사하였지 자기 평생에 몇 번이고 직종을 옮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은 엘리트 이민이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의 직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직종을 옮겼던 것이다.

엘리트 이민의 세 번째 특성을 대리 만족이라 하였다. 이것은 재미 동포들이 유난히 골프를 즐기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미국에서는 골프를 귀천 없이 즐기는 스포츠라 하지만 골프는 역시 엘리트의 스포츠이다. 재미 동포는 유난히 골프를 즐기는 것은 비록 직종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스포츠에서나마 귀족의 것을 즐기려는 심리에서 유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미 동포들에게도 에스닉 비즈니스가 있다. 이것은 그로서리, 세탁소 그리고 뷰티 써플라이 이다. 그로서리와 세탁소는 한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물려 받거나 다른 민족과 경쟁에서 획득한 업종이지만 뷰티 써플라이는 재미 동포가 처음으로 이룩한 업종의 하나로 재미 동포가 미국 사회에 공헌한 것의 하나라 말할 수 있다.

재미 동포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때마침 미국에는 흑인 운동이 절정에 달하여 Black is Beauty라는 구호를 외치며 흑인들이 멋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가발을 사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당시 가발을 제조하고 운송하여 판매한 사람이 한국인으로 심지어 오늘의 한국 재벌도 가발장사에 손 안 댄 재벌이 없었고 한국 유학생을 시키거나 이민 온 사람들 시켜 가며 가발장사를 하였고 당시 가발장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달러를 푸대로 담아 갔다고 한다.

원래 흑인들이 사용한 머리 기름이나 샴푸를 유태인이 독점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흑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었다. 이것을 한인들이 인수하면서 방리다매를 실시하여 머리 기름과 샴푸를 싸게 팔아 흑인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쓸 수 있게 하였다. 흑인들의 가발과 머리에 필요한 기름 샴푸 그리고 머리에 필요한 장식을 독점하여 파는 것이 뷰티 써플라이 인더스트리(Beauty Supply Industry)이다. 전 미국에 2만 개에 달하는 점포를 한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최근 뷰티 써플라이 인더스트리계에 두 가지의 새로운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하나는 2세들이 등장하여 부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판매전략으로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 가고 또한 도매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생산된 싼 유사품이 아랍인 가게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싼 제품을 만들어 아랍 상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한인들과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인들의 뷰티 써플라이 인더스트리는 이 무서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재미 한인 사회에 새로운 경향이 있다면 그간 누적된 경험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재벌의 출현과 차세대의 출현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선정한 연간 3천억 달러 매상의 30대 세계 Leading CEO 중 90%가 미국에 계신 분이다. 업종은 다양하다. 모든 Leading CEO 분들은 각기 자기의 업종에서 성공하신 분이다. 물론 이분들 이외에도 발굴하여야 할 분이 두 배는 족히 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영역이 차세대의 출현이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1.5세 2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학계, 과학계, 언론계, 정치계 등은 물론 금융계, 사업계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차세대 들이 이미 수 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 4. 결론;

세계에 분포된 7백만 재외 한인이 있다 하여도 경제에 한한 한 미국 동포가 만형 노릇을 하여야 한다. 재일 동포가 재미 동포보다 이주의 역사가 길다 하여도 일본의 차별과 편견이 심하여 재일 동포는 마음껏 성장하지 못하였다. 최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같은 인물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그는 특이한 존재이고 일반적인 재일 동포는 미국 동포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CIS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자본가다운 자본가가 출현할 기회가 없었다. 미국 동포는 이런 의미에서 일본, 중국, CIS, 동남아시아, 남미 등 모든 나라 동포들의 만형 노릇을 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온 세계가 큰 전환기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인류는 경쟁단위가 국가에서 민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한 세계는 Culture Technology CT, Information Technology IT, Bio Technology BT 그리고 Nano Technology NT.에서 무서운 경쟁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후기 산업사회의 신기술들은 국경이 필요 없이 두뇌와 자본만이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중공업화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여 과거 성장한 여세를 몰아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민족인 동포 여러분의 기술 협력과 자본의 후원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그간 한국이 산업국가로 성장할 때, 재일 동포는 1960년대 자본을 제공하여 한국의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을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이 중공업화를 서두를 때 재미 동포의 두뇌가 공수되어 빠른 시일 내에 중공업 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서울 근교에 일산과 분당을 건설할 때 중국 조선족 동포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은 재일 동포, 재미 동포, 재중 동포 그리고 재 유럽 동포들의 힘입은 바 크다.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 다시 한번 세계에 분산된 한민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재도약을 기할 때가 왔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몇 가지 동포들에게 긴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인들은 단일민족의 경험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없다. 다민족 국가에서 살아 본 동포들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빨리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한인들은 유교적 사고에 너무 길게 젖어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빈약하다. “1달러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적과도 악수 하라” 는 사업가 정신을 한인들은 결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 기업인은 기업가 정신, 자본가 정신을 빨리 한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마케팅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13억의 인구 강국과 1억 2천의 경제 강국 사이에서 한민족이 살아남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허브 국가가 되는 길은 해외에 분산된 동포가 어느 만큼 한반도의 한인과 협력하여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끝.